

# 일제하 식민도시 개발과 조선인 자본가형성의 특징

- 전북지역 박기순·박영철 일가를 중심으로 -\*

김 경 남\*\*

- I. 머리말
- II. 일제의 이리 식민도시 개발과 전북지역 도시지평의 변화
- III. 전북지역의 지역토착형 자본축적 사례
- IV. 조선인 권력형자본가의 중앙 재계 진출의 특징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근대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특징과 조선인 자본가의 복합적 성장 유형을 밝히기 위해, 대표적 조선인 자본가 박기순과 박영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중앙 정치권력과 지역의 식민 도시 개발, 조선인 부르주아 형성을 상호 연관구조 속에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국 강제 병합 직후 조슈벌 출신 총독들은 일본 국내 반대세력 무마를 위해 만경강 일대 호남평야의 미곡 수이출 교통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급선무였다. 주요 시책은 이리(현재 익산) 신도시 개발과 전북경편선(후에 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3617).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전자우편: knkim@knu.ac.kr

라선) 철도역 연변을 개발하는 작업이었다. 박기순은 이리-전주 일대에 광범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개발과정에서 박기순은 전북경편철도 기성회 회장을 맡고 익산군수 박영철, 전주면장 이성규가 역세권 개발에 앞장섰다. 그러므로 지역 개발이 조선인 자본가 박기순의 토지자본 축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박기순은 지역유력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둘째, 전북에서 성장한 박기순·박영철 일가의 자본축적 유형은 총독라인에 밀착된 권력형, 지역형 자본축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삼남은행의 최대주주와 최고경영자는 박기순이며, 장남 박영철을 비롯하여 그 일족들이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습적 가족경영체제이었다.

셋째, 박영철이 중앙재계로 진출한 것은 도장관을 지낸 친일 관료라는 점과 부친 박기순의 축적된 토지자본과 금융자본 덕분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총독부의 금융기관 통폐합 정책에 힘입어 정권과 결탁하여 조선상업은행의 사장을 맡으면서 톱클래스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그 대신 각종 정치사회단체를 만들어 일제의 총동원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박기순·박영철은 일제의 식민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조선인 자본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제국과 식민지라는 관계 속에서 2등 국민이라는 민족적 한계, 총독부의 금융 통폐합 정책에의 포섭 등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일제의 패전으로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총독부 권력이 사라지고 가족 내부문제 등으로 박 일가의 세력도 재력도 쇠퇴하게 되었다.

◆ 주제어

조선인 자본가, 삼남은행, 조선상업은행, 박기순, 박영철, 이리개발, 전주, 조선총독

## I. 머리말

식민지 시기 조선사회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 이전 전통사회의 지역공동체가 식민지 지배 하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sup>1)</sup> 특히 한국자본주의는 형성초기부터 서양제국과 일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모순구조는 일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자본주의 작동구조 속에서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 한반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일본내각과 자본가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지역은 전북 만경강 유역의 호남평야 일대이다. 한국을 강제 병합 한 후 총독부는 이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수 수출하는 식민지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시기 일본인 대토지자본가들의 만경강 일대 평야 지대에 대한 식민지적 개발과 수탈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sup>2)</sup> 이에 따라 일본인 자본가들의 대토지 소유가 계기가 되어 이 지역에 거점 ‘마을’이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일대 농촌사회가 급격하게 변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3)</sup>

- 1)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미즈노는 행정단위로서 군(郡)을 최대범위로 잡고 있다.(미즈노 나오키, 「식민지 조선의 지역공동체와 일본의 지배정책」,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중점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6, 9쪽). 일제강점기에 오면 군면이 통폐합되는 상황이므로 지역공동체 또한 이에 따라 변동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 2) 만경강 일대 전주평야의 일본인대토지자본 침투에 대한 자세한 것은 홍성찬, 최원규, 이준식, 우대형, 이경란,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 정치』, 혜안, 2006 참조.
- 3) 이리 신도시 개발의 식민지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승진,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 전북 裡里와 大場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쌀.삶.문명연구 창간호』 전북대 인문학국 쌀.삶.문명 연구원, 2008;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55, 2012; 진실, 「일제강점 초기 일본인의 이리 진출과 도시형성」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중점연구소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16, 399-432쪽 참조.

지역 개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인대자본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승진은 이리신도시는 복합 위계도시로 파악하고 있고, 신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연관구조에 대하여 대장촌(오바무라, 大場村)을 사례로 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당시 신도시 개발을 직접 추진한 총독부 세력으로서 전북도장관 이두황과 익산군수 박영철, 그리고 그들이 포섭한 박기순 등 조선인 관료와 조선인 자본가들의 연관구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시 이리 신도시 개발에서 친일파로 협력한 조선인 관료와 자본가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형시켜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한말 일제강점기 개별 기업 및 조선인 자본가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4)</sup> 최원규는 조선인 지주들이 지주형 자본축적과 산업자본가형 투자를 도모했으나 최종적으로 일제의 자본집중적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국책 금융기구에 전체적으로 종속되어 가는 실태를 도출하였다. 허수열은 일제시기 조선경제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조선인을 소외시킨다는 의미에서 ‘개발 없는 개발’이라고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였다. 배석만은 백낙승과 이종희의 군수회사를 중심으로 경영구조를 분석하여 일제의 총동원체제하 조선인기업의 식민지적 경영구조를 도출하였다. 오미일은 경성의 민영회, 광주 현준호, 전주의 백인기 일가, 부산의 안회제 등 각 지역의 조선인 자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산업발달사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총독부 권력과의 결탁여부가 자본주의적 기업경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4) 최원규, 「일제하 한국인 지주의 농장경영과 자본전환,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홍성찬 외 공저, 『앞의 책』;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배석만, 「일제말 조선인자본가의 경영활동 분석: 백낙승과 이종희의 군수회사 경영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5호, 경제사학회, 2008; 정안기, 「식민지기 조선인자본의 근대성 연구: 경성방직(주)와 조선방직(주)과의 비교시점에서」, 『지역과 역사』 제25호, 부경역사연구소, 2009; 오미일, 「일제시기 호남재벌 현준호의 학과농장과 자본축적 시스템」, 『한국민족문화』 제35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근대 한국인 대지주층의 자본축적 경로와 그 양상: 윤치소 일가의 기업투자와 농업경영」, 『한국사학보』 제47호, 고려사학회, 2012;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 민영회에서 안회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2014.

창조경영의 도전자였던 화신상회 신태화와 부산의 안희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최근 김경남은 조선인 상층 자본가들은 민족성보다 계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역겸임을 통한 일본인 자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역성에 기반을 둔 자본가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5)</sup> 이에 따라 한국 근대 자본가층의 계보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특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근대 자본가 성장유형은 권력지향형, 지역토착형으로 구분하거나, 자본의 축적유형으로 구분하여 상업자본가에서 산업자본가로, 지주에서 산업자본가로, 관료에서 산업자본가로 변신하는 유형 등으로 파악하여 왔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모두 개인에 대한 미시적 구분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진행된 시간과 지역적 공간 이동을 두고 형성된 세습적 재벌 일가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즉, 전북지역 대표적 자본가 박기순과 박영철과 같이 지역토착형과 권력지향형이 한 가문에서 같이 나타나고, 상업자본과 토지자본을 토대로 산업자본가로 성장한 복합형 사례가 그것이다.

박영철은 일제강점기에 부호의 일족을 의미하는 재벌로 분류되었다.<sup>7)</sup> 한국의 근대 자본주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습적 자본주의의 형

5) 상층 조선인 자본의 민족적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최원규의 논문에 지적되어 있다(최원규, 앞의 논문, 352쪽).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자본가 구분에 대한 사례는 다음을 참조. 김경남, 「한말 일제초기 조선본점기업 자본가네트워크의 형성」 『지역과 역사』 제12호, 2003; 「전시체제기 중역겸임제를 통한 자본가 네트워크와 전시동원체제」 『전북사학』45호, 2014; 김선영,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지역 자본가의 성격과 활동』, 울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6) 오미일, 앞의 책, 2014; 김경남, 앞의 논문, 2003; 2014; 김선영, 앞의 논문, 2014.

7) 재벌은 일본에서 1900년 전후 만들어 사용한 조어로, 당초에는 동향에 사는 부호를 지칭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는 같은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호의 일족을 의미하게 되었다. 지금 학계에서 재벌은 가족 또는 동족에 의해 출자된 지주회사를 핵심으로 하여,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말하며, 대규모 자회사는 산업부문에 과점적 지위를 점한다. 또는 중심적 산업을 복수로 과점기업을 산하에 가지고 있는 가족을 정점으로 한 다각적 사업형태라는 규정이 통설이다.

성이며, 일본인이나 조선인을 막론하고 주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재벌가를 형성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세습체제에 의한 자본주의적 경영은 흔히 있는 일이나, 식민지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경유착 구조의 규정성과 장자 중심의 문중을 이어나가는 가부장적 특성 등은 한국 사회에 독특한 재벌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재벌은 패전 후 GHQ에 의해 이미 해체되었고, 세계 각국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세습적 가족경영체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복합적 자본가 성장 유형의 기원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의 미래지향적 진취적인 자본주의 형성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한국 근대 식민지 자본주의 형성과 조선인 자본가의 복합적 성장 유형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지역 신도시 개발이 조선인 부르주아 형성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전북지역 대표적 자본가 박기순과 박영철을 중심으로, 이리지역 신도시개발과 지역형·권력형 축적의 관련성을 밝히고, 중앙 재계로 진출하여 톱클래스로 성장한 식민지 조선인 자본가 형성의 식민지적 특질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박기순과 박영철 일가는 백남신·백인기일가, 김경중·김성수·김연수 일가와 함께 일제시기 대표적인 전북지역 자본가 집안 중의 하나이지만 전문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에서 성장하여 전국적 레벨로 성장한 복합적 자본가 성장유형의 사례로 적절하기 때문이다. 부친 박기순은 상업활동과 토지자본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자본을 축적하였고, 아들 박영철은 관료 출신으로 권력지향적 자본가로서 대를 이어 재벌이 되었다. 셋째 일제 강점 초기 군산과 전주를 사이에 두고 이리(현재 익산)를 식민도시로 개발하고자 하였을 때,<sup>8)</sup> 박영철은 군수로서 박기순은 지역의 ‘토지왕’으로서 식민도시 개발의 주역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8)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55, 2012.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되는 식민지적 구조를 밝히며, 지역에서 자본을 축적하여 경성 중앙 체계로 진출함으로써 전국적 레벨의 체계 인사로 성장하는 식민지 자본가 유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역간 도시개발의 상호연관 구조 속에서 자본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에 매몰되는 한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현대 한국 자본주의에서 세습적 가족경영체제를 벗어난 건전한 자본주의를 형성하여 세계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구조가 필요한지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 관련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지방행정 관련기록(국가기록원 소장)을, 인물경력 자료는 총독부가 작성한 직원록과 당시에 쓴 이력서, 회고록 등을 주요자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박영철의 일본인 권력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내각과 육군성이 작성한 기록, 서훈기록(일본 동경 국립공문서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외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 신문자료,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 II. 일제의 이리 식민도시 개발과 전북지역 도시지평의 변화

### 1. 일제의 이리 식민도시 개발과 주도세력

일본인 자본가들은 일찍이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인 만경강 일대 호남평야를 주목하였다. 이에따라 1904년 이전에 대장촌, 임피, 김제, 황등, 옥구 등에 호소가와 농장, 구마모토 농장, 후지농장, 박기순 농장, 동척 '개척' 농장 등 대규모 농장이 만들어졌다.<sup>9)</sup>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한국을 강

9) 전북지방에 있는 熊本農場의 농장주인 熊本利平도 1903년 10월 전북 沃溝郡 朴面 內沙里 및 泰仁郡 禾湖里에 두 개의 농장을 개설하였다. 식민농업 경영의 대표자인

제 병합한 이후 조슈벌 출신 군인세력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전북 이리를 신도시로 개발하고자 한 목적은 이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대토지자본가들과 소수 조선인자본가들의 이익과 일본내각을 장악하고 식민지 경영을 주장하였던 조슈벌 출신 권력자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농장 개발과 농장에서 생산한 미곡을 수이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였고, 조슈벌 출신의 테라우치 총독으로 대표되는 권력가들은 일본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신속히 눈에 띄는 성과가 필요하였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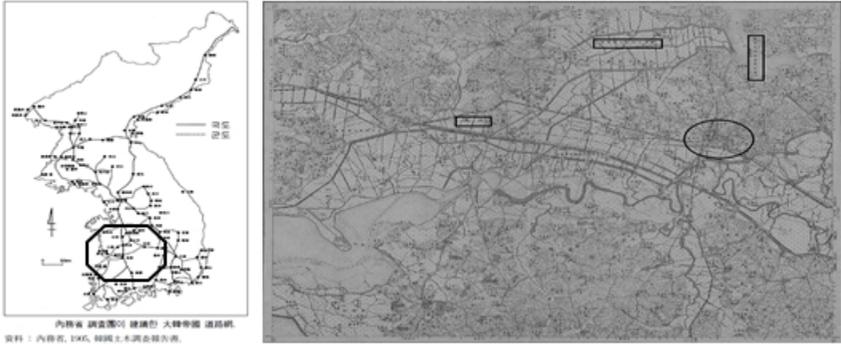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군산항, 인천항, 오사카, 고베를 연결하는 미곡 수이출 교통체계를 완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군산부 개발을 비롯하여 평야를 잇는 임피역, 이리역, 대장촌역을 중심으로 한 식민도시 개발정책이었다. 반면 이러한 평야를 잇는 철도 개발 이외에 전통적으로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던 전주는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 의병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었다. <그림 1>은 만경강 일대 호남평야와 이리의 교통 결점점으로서 지정학적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

藤井寛太郎은 1906년 6월에 全北農場을 개설한 후 1914년 藤本合資會社에서 독립하여 不二興業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石川縣農業(주)는 1908년 7월 金堤郡 읍내에 출장소를 두고, 읍내를 중심으로 약 2리의 거리로 토지매수에 착수하여 水田 1만 5천 두락, 밭 241 두락을 매입하였다. 金容燮,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88, 376쪽, 475~485쪽; 淺田喬二, 『(增補)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龍溪書舍, 1989, 67~68쪽.

10) 테라우치 총독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상숙, 『조선총독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2012, 114~115쪽.

<그림 1> 만경강 일대 호남평야와 교통중심 이리 신도시 개발



출전: 「만경」, 『구한말한반도지형도』, 1897

<그림 1>에서 보면, 군산과 가까운 익산지역의 지형(오른쪽 그림)과 경성과 목포, 여수를 잇는 교통의 결점점이 전통적인 중심도시 전주가 아니라 이리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왼쪽 그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는 1914년 ‘부제’와 ‘군제’를 선포하였고, 경성·평양·대구 이외 ‘전통도시’들은 모두 지역의 중심행정도시라 할 수 있는 ‘부’에서 제외시키고 군으로 편성한 다음 중심지를 최하단위인 ‘면’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 식민지적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오랜 기간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전주는 전주군 전주면으로 축소 편성되었고, 항구에 불과하던 군산은 군산부로 승격 조치하였다.<sup>11)</sup> 총독부는 군산과 이리를 중심으로 전북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였다.<sup>12)</sup> 총독부는 경성과 목포를 잇는 루트에 군산까지 가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였으므로 우선적으로 군산의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후일 전주개발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sup>13)</sup> 그것

11) 일제강점기 ‘전통도시’의 잠겨 형태에 대해서는 김경남,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 2015, 255-256쪽 참조.

12) 이리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55, 2012.

13) 여기서 위성도시는 중심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독립된

이 바로 이리였다.

이 지역의 도시 개발을 추진한 세력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권력기관 총독 부였다. 식민지 민중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당시 도시개발의 식민지적 특징이다. 일제는 조선에 식민지 지배 정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일본법을 그대로 조선에 실행하였다. 조선의 관제를 메이지 일왕의 칙령으로 공포하였고, 행정, 군사, 경찰, 헌병 등 실로 많은 일본인 관료들을 조선의 관청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일선에서 조선인들과 직접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협력자들이 필요하였다. 특히 만경강 일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독부 지방행정 결재라인에서 자신들의 충복으로 쓸 수 있는 믿을 만한 조선인이 필요하였다.

1880년대부터 지속된 일제의 치밀한 친일파 양성계획은 성공하여 이 시기에 유익하게 활용되었다. 테라우치 총독은 이미 친일파로 검증된 이규황과 박영철을 각각 전북도장관과 익산군수로 선임하였다. 이규황은 1894-5년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과정에서 죄를 지어 일본으로 망명한 친일파로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자 190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한제국 관리가 된 인물이다.<sup>14)</sup> 박영철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러일전쟁에서 이미 일본의 세작으로 활약한 공로가 있어 서훈을 받았던 인물로서, 테라우치의 직속후배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직속상관으로서 그를 신임하였기 때문이다.<sup>15)</sup> 무엇보다도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기순이 그의 부친이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

도시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사전적 의미로 위성도시는 대도시를 중심도시로 하여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도시를 말하며, 도시계획·지방계획·국토계획상 중요시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위성도시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건설된 소도시라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內閣總理大臣 大隈重信, 朝鮮總督府全羅北道長官李斗璜叙勳, 叙勳裁可書 大正五年叙勳卷一上 內國人一上, 1916.3.8.

15) 대장성관리국,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제2분책, 1947, 105~106쪽.

<그림 2> 이리개발의 주도세력 인물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박기순



박영철

박영철은 한국 강제 병합 후에 조선주차헌병대 교관으로 재직하였으며, 군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예편하여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익산군수(1917년도는 논산군수)를 지냈다. 그가 익산군수로 발탁된 것은 일제 초기 조선총독부의 전북지역 도시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전주평야를 배경으로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이었던 전주의 지방세력을 억압하고, 새로 떠오른 도시 군산의 지방세력을 지지하기 위해 위성도시 이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미 1914년 총독부의 부면폐합 정책으로 용안군, 여산군, 함열군이 익산군으로 통폐합되었고,<sup>16)</sup> 전주군의 남일면을 독립시켜 익산군으로 만들어 놓은 터였다.<sup>17)</sup> 구체적으로는 호남선과 경전선(군산과 전주)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리역 주변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드는 것이었다.<sup>18)</sup>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이른바 ‘개척’마을을 만들

16) 조선총독부, 전주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 지령안 (1), 1914; 『익산시사』, 2001. 433-434쪽.

17) 『전주부사』, 343쪽.

18) 정승진은 신도시 이리를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리의 도시적 성격에 대하여 개항과 식민지체제에 따라 급조된 이른바 세계지역화하의 지역거점도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식민지 지역사회는 세계체제라는 국제간 분업시스템 속에서 존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승진, 앞의 논문, 2012.

어 주변 토지의 지가를 올려 토지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도시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핵심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새롭게 부상한 군산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sup>19)</sup> 이것은 이른바 ‘전통도시’ 전주의 향촌세력 길들이기 작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친일과 이두황·박영철을 추진 관리로 등용한 것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다루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총독부는 횡단으로 군산과 전주, 종단으로 경성·대전과 목포를 연결하기 위해, 이리에 정차장과 신도시를 만들어 전북지역의 새로운 교통 중심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기존 향리 세력인 전주의 유지들이 일제에게 유리한 도로, 철도 등 수탈을 위한 지배정책에 대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묘수를 낸 것이다. 이처럼 이리 도시개발은 전북지역의 전통적인 세력과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과의 대결 현상이었다. 이때 총독의 대리 역할을 했던 관료가 전라북도 장관 이두황과 익산군수 박영철이었고, 그 정책에 협력했던 자본가가 그의 부친이자 재력가인 박기순과 그의 지역 자본가 네트워크이었다.

## 2. 이리 신도시개발과 박영철·박기순의 지역기반 형성

박영철은 조선헌병주차군을 예편하여 익산군수로 발령받았다.<sup>20)</sup> 익산군수는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그는 막강한 총독 라인으로서 전북도 장관 이두황과 함께 전북지역의 정치·경제적 판세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

201쪽). 그러나 국제간 분업시스템 속의 이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리와 일본본토 및 일제의 세력권내에서 구체적인 분업시스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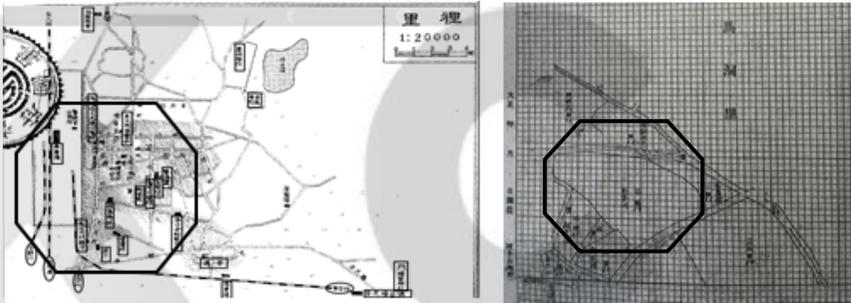
19) 전통적 지역 중심도시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선 억압정책을 취하지만, 세계 자본주의 정세 변화에 따라 조선이 대륙병참기지로 바뀌면서 전주도 개발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남, 앞의 논문, 2015 248-255쪽 참조.

20) 「朝鮮人將校の狀態」, 「朝鮮軍人及朝鮮步兵隊ニ就テ」, 1925年 3月(『齋藤實文書』第12卷).

게 되었다. 그리고 이리 개발은 협력자 박기순과 함께 자신들이 새로운 지역 유지로 입성하는 지역적 기반이 되었다. 당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리 신도시를 정비하고 도로와 철도 주변으로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912년 1월 그가 부임 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호남선 이리역 주변 시가를 정비하고, 이리역과 전북경원철도를 중심으로 도로를 개수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먼저, 가장 긴급하게 추진한 것은 옛 중심지 금마가 아닌 대한제국 말에 10호 정도 살던 숨리 지역의 신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었다.<sup>21)</sup> 다음은 당시 이리의 신시가지를 나타내주는 지도이다.

<그림 3> 이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도심지구와 박기순의 토지



출전: 『익산군사정』, 1928 및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이리 편, 191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이리 중심지(아래 왼쪽 시장쪽)를 벗어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숨리지역(지도의 왼쪽 중앙, 현재의 중앙동, 인화동, 주변동, 갈산동, 평화동, 창인동 일대)에 신도심을 형성하고 있다. 역 주변에는 면사무소, 경찰서, 학교, 발전소, 내무국 토목출장소를 설치하였고, 이른바 ‘개척’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동척 이리지점을 설치하였다. 동척은 먼저 토지를 수탈한 뒤 일본으로부터 일인 빈농들을 이주시켜 그 밑에 한국인 소작농

21) 조선총독부관보 토지수용령시행, 대정2년 1월, 126-149호: 토지수용령지역, 대정2, 3년 173-197호.

을 두어 농장을 경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sup>22)</sup> 이러한 과정에서 동양척식회사가 목천동 일대에 그 소작인들을 위해 세운 개척촌이 일동척, 이동척, 삼동척, 사동척, 육동척 등이었다. 이 신도심은 후에 오산면과 춘포리 등과 함께 일본인들의 전북 내륙 침투의 거점으로 변화하였다.<sup>23)</sup>

둘째, 이리 신도시개발은 일본인 대토지자본가들과 일부 조선인자본가들의 토지기부에 기반한 것이었다. 1913년도부터 1914년도에 오오하시 등 일본인들이 토지를 기부하여 청사부지와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sup>24)</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박기순도 박영철의 이리 군수 시절인 1912년부터 1918년 사이(논산군수 1917년 포함)에 집중적으로 도로용 토지를 기부하였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기순이 1921년 3월에 증추원 참의가 되기 위해 신청한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상훈연도를 기부한 연도순으로 고쳐서 다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박영철 익산군수 재임시 박기순이 조선총독부에 기부한 내용

기부한 연도	기부 내용	포상 내용	담당기관
1911.12.19	호남선용지 買受件	慰勞金圓 배수	조선총독부
1911.10	도로공사비 金圓 기부	木杯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2.8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3.2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3.7	도로용 토지 기부	奇特狀 배수	조선총독부
1914.11	明治神社 건설시 백엔 기부		
1914.5	도로용 토지 기부	木杯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4.11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22) 최원규, 「東洋拓植株式會社の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韓國民族文化』16,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0.

23) 익산에서는 왜색 명칭이 치욕의 표상이라 하여 이리를 익산으로 개칭하고, 1973년 5월 8일에 일동척을 신평리, 이동척을 금봉리, 삼동척을 부농리, 사동척을 화정리, 육동척을 유신리로 개칭하였다(익산시사편찬위원회, 『익산시사』, 2001 참조).

24) 『매일신보』 1912.4.6. 일본인의 토지기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진실, 앞의 논문, 399-432쪽 참조.

1915.12.2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5.12.13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6.1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6.5.23	전북 전주경편철도 취체역에 임명		
1916.5.5	全州德津公園 건설		
1916.8.2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6.12.29	전주 다가공원 방천석축 104간을 기부	포상장 배수	조선총독부
1916.12.23	도로용 토지 기부	목배 한쌍 배수	조선총독부
1918.10.20	전주시구개정으로 백옌 기증		
1918.12.10	전주 영동간 도로공사에 120엔 기부		

출전: 조선총독부, 各道議員 推薦의 件, 전라북도 中樞院 의원 추천의 건, 1921.

위와 같이 박기순은 박영철 익산군수 재임시기인 1912년부터 1918년(논산군수 1917년 포함)까지 집중적으로 도로용 토지를 기부하고 있다. 이 도로는 전주와 군산간 도로 건설 부지이며, 박기순은 전주-영동간 도로 비용도 제공하였다.<sup>25)</sup> 주목되는 것은 <그림 3>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박기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리역 바로 앞의 대지를 비롯하여 이리역과 가까운 목천리, 동산리, 석탄리 등에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6)</sup>

이렇게 일본인대자본가들과 조선인 자본가들은 총독부에 토지를 기부하여 신도시 이리가 새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총독라인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던 박영철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신도시 이리개발은 본격화되었고 이리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대장촌, 동산리, 목천리 등과의 연계 작업으로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정비되었다.<sup>27)</sup>

25) 조선총독부, 各道議員 推薦의 件, 전라북도 中樞院 의원 추천의 건, 1921.3.

26) 朝鮮總督府, 地籍原圖 裡里, 1915.

27) 박영철 군수 시기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1912.11.10. 『동아일보』, 「總工費 二百萬圓으로 主要道 鋪裝工事, 전북도에서 총독부에 신청 중, 賦役問題도 따라 解決(全州)」 1913. 『동아일보』, 「全州 大田間道路工事 年内로 完成豫定」 1915.3. 12. 『매일신보』, 「전주통신: 太鎭間道路」 1916.4.19. 『매일신보』, 「지방통신: 전라북도, 前驛道路問題(전주)」 1916.11.15. 『매일신보』, 「군산 전주간 도로포장공사를 실

한편 1914년 1월 11일에는 호남선이 경성-대전-이리-나주-목포가 연결되고, 동년 11월에는 이리와 전주를 잇는 전북경편철도가 개설되었다. 이 철도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급격히 성장한 일본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면서 철도가 만들어졌다. 이 노선은 비록 길지 않지만, 주변이 곡창지대로 전북 중심 전주를 연결하고 호남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객과 화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sup>28)</sup> 신도시 이리역에 호남선과 전북경편철도를 잇는 사통팔달 연계로 군산항과 중계도시 이리, 내륙도시 전주를 연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전주 중심의 상품화폐경제 구조가 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계구조로 바뀌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 교통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전북지역의 중심 체계가 변형되게 되었다.<sup>2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영철과 박기순은 이리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리 개발 과정에서 박 일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강한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일본내각정부와 총독부로부터 수많은 훈장을 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의 신임 하에 전북지역에서 대표적인 조선인 자본가와 관료로 튼튼한 입지를 굳히게 되어 지역유지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중심지였던 금마지역은 옛 중심지로 전락하였고 많은 조선인들은 근대화로부터 소외되었다. 1915년 당시 이리에는 일본인이 1,893명, 조선인 348명이 살고 있어, 새로 만들어진 신시가지 이리에 일본인들의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잡거 형태를 나타내는 ‘전통도시’ 전주와는 달리 전형적인 식민도시의 주거형태를 나타내고 있다.<sup>30)</sup>

---

시하여 도로개수비만 1년에 1만원, 16만원 예산으로」 1917.2.20. 『매일신보』, 「전주: 제2회도로계획」 1917.8.17. 『매일신보』, 「지방통신: 전라북도, 全鮮間도로並木(전주)」 1918.7.18 「전주: 전영도로개축과 산간부의 개발」 1918.9.24 「전주, 신도로와 지주의 승낙」.

28) 허우궁, 『일제강점기의 철도수송』, 서울대출판부, 2010년, 47쪽.

29) 조선총독부 철도국 1914/1928. 정승진, 2012. 205쪽.

30)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개발과 잡거 형태에 대해서는 김경남, 앞의 논문, 2015 참조.

### III. 전북지역의 지역토착형 자본축적 사례

#### 1. 박기순의 자본축적 경로와 특징

그러면 박기순은 어떻게 전라도에서 가장 큰 토지재벌이 되었을까. 당시 삼천리 제14호에서 게재된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박기순은 몰락양반으로서 열두 살에 부친을 여의고 다른 상점의 사환을 하다가 미국 상으로 독립하여 전주평야의 미곡을 군산과 인천에 내다 팔아 큰 이득을 얻었다. 그 돈을 종자돈으로 삼아 계속 삼남의 비옥한 토지를 사들여 만석군 지주로 '토지왕'이 되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은행, 금융조합, 수형조합, 일본적십자사, 대한협회, 호남협회 등 각종 사회경제단체에서 활동하였다. 격동기 일본의 세력 확대와 함께 친일파로서 이리·전주지역에서 입지를 굳혀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에도 여산군수로 유입하였다.<sup>31)</sup>

그러면 구체적으로 박기순은 총독부의 전북지역 특히 신도시 이리 개발과 전주 연계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 기반을 구축하였는지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축적 수단은 토지자본의 축적을 통한 것이었다. 오늘날 정관계와 유착된 강남 신도시 개발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논밭이 새로 개발된 신도심 주변과 익산의 이리역, 대장촌역, 전주의 삼례역, 전주역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전북경원철도 기성회 회장으로 박기순이 역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당시 일선에서 정책을 구상하였던 익산군수가 자신의 아들 박영철이고, 전주면장 김성택이 경원철도 기성회 총무로서 면사무소를 기성회 사무소로 쓰고 철도관련업무

31) 그는 1891년 6월 사헌부 감찰, 1901년 11월 중추원 의관을 비롯하여 한국 강제 병합까지 실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다. 전주농공은행 설립 위원(1906.5), 시중원 부경(1906.7), 전주시방금융조합 설립위원(1907.9), 전주수형조합장(1909.11), 전주농공은행 은행장(1908.2), 대한협회 전주시회 평의장, 전주종묘장 창립준비위원, 일본적십자사 전주시부 협찬위원(모두 1909.8), 1910년 8월 전라북도 관찰도 여산군수로 임명되면서 전주농공은행 은행장을 사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 2(ㄴ-ㅇ),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도 이곳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밝혀주는 사례를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기순은 익산군의 옛 중심지 금마면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외곽이었던 숨리를 개발하였다. 박기순은 정확하게 이리역 앞에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목천리와 전북경전철을 따라 구이리역, 대장촌역 주변에 논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 2>는 상세한 토지소유 내용이다.

<표 2> 박기순의 익산면 토지소유 현황

지명	지번 및 토지종류	비고
익산면 이리	3(대), 31(전)	이리역앞(중앙통)
익산면 동산리	124(대), 136(전), 74, 78, 286, 308, 491(답)	구 이리역 일대(현재 동의산역)
익산면 마동리	117(대)	구 이리역
오산면 목천리	404(전), 476, 491(이상 잡) 568 580 582 607 646 648 927 933 934 967 969 971 868 1096 1050 (이상 답)	이리역 일대
춘포면 석탄리	5 8 10 12 18 45 74 89 92 95 101 106 107 110 116 118 120 122 322 328 332 333 335 342 348(이상 답)56(대)	대장촌역(후에 춘포역 일대)
춘포면 대장촌리	418, 419, 471, 812(이상 답)	

출전: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이리에서 조사 (1915년 현재)

이처럼 박기순은 이리역앞 중앙통 이리 3번지와 31번지에 넓은 대지와 전답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3 오른쪽>의 한가운데 넓은 대지가 박기순의 토지이다. 또한 이리역을 중심으로 아래쪽 목천리와 전주쪽으로 동산리, 마동리, 석탄리, 대장촌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경편철도역 연변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익산군과 전주군 일대의 실로 광범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표는 1915년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대지, 논, 밭의 지역적 분포와 그 실태에 관한 것이다.

<표 3> 박기순의 토지소유 분포와 역세권

역세권	토지소유 분포지명		
이리역	익산군	익산면	이리
		오산면	목천리
익산면		마동리	
익산면		동산리	
대장촌역		춘포면	석탄리
		춘포면	대장촌리
삼례역	전주군	삼례면	삼례리, 후정리
		봉동면	봉동면, 고천리, 구미리, 낙평리, 성덕리, 신성리, 울소리, 은하리, 장기리
전주역	전주군	용진면	간중리, 금상리, 산정리, 신지리, 아중리, 용흥리, 운곡리
		난전면	문정리, 석구리, 장천리
		소양면	명덕리, 신교리, 죽절리
		우림면	계용리, 송정리, 안산리
신리역	전주군	구이면	항가리
		상관면	대성리, 신리, 의암리, 죽림리

출전: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이리편, 1915년 현재에서 조사. 신리역은 전라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기순은 익산군의 이리역, 구이리역, 대장촌역 주변으로 전, 답,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전주군의 삼례역을 중심으로 삼례면 삼례리, 후정리와 전주역을 중심으로 용진면, 봉동면에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라선의 신리역 주변으로 소양면, 상관면, 구이면 등 전주군 동남북 구역을 중심으로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그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전주-익산을 잇는 경전철(후에 전라선) 주요 역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당시 전주-이리간 경편철도는 15.56마일의 협궤 증기철도로, 전주평야를 대략 남북으로 종단하며 전주방면으로부터 덕진, 동산, 삼례, 대장, 구이리 5개 역을 연결했다.<sup>32)</sup> 박기순은 전주를 통하는 호남선 철도부설은 측량까지 전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반대하였으나, 경편철도 부설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회장으로서는 총무를 면장 김성태로 임명하여 직접적으로 전주면 철도부설 업무에 간여하였다.

결국 원래 그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전주 도심이 아니라 외곽지대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익산면 신도시개발과 전주면을 잇는 경편철도 개발과 역세권 개발과 연결되고, 전주면 구역 확장으로 인해 점차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그의 토지는 1930년 현재 685정보였으며, 1933년 현재 신탁회사에 320만평을 신탁하였을 때 토지 시가는 150만원이었다.<sup>33)</sup> 1928년-1930년 경편철도는 광궤로 바꾸기 시작하여 1930년 경 전 구간이 완공되면서 이리와 각 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층 중요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전주-익산을 잇는 주요 역 주변에 그의 토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것은 박기순이 호남선 전주 부설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였으나, 전주-이리간을 운행하는 경전철을 만드는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주 경편철도 설치 기성회의 회장을 맡았는데,

---

32) 조선총독부는 이 경편철도를 1927년 10월 1일 매수하였다. 전주부, 전주부사 780-783쪽. 이 경편철도의 성격에 대해서 허우궁은 지역 경제개발형 철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서 대구-포항-울산을 잇는 경동선(또는 대구선), 서악-경주-울산-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재령, 장연, 해주, 용진을 잇는 황해선, 다사도선, 수인선, 경북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허우궁, 앞의 책, 46-51쪽).

33) 1930년 당시 전라도 일대 토지 685정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931년 조선상업은행 주식 3970주를 소유하였고 박영철이 6700주를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등극하였다. 박기순은 1935년 9월 30일 사망하기 2년전 193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20만평(시가 150만원)의 부동산을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신탁했다(민족문제연구소, 친일사건, 박기순편).

부회장은 유두환, 총무는 면장 김성규로 정하였다. 기성회는 면에 사무소를 두고, 면사무소에서 서무를 맡고 기부 모집까지 유도하였다. 김성규는 1912년 5월 10일부터 1917년 9월 30일까지 전주면장을 역임한 인물이다.<sup>34)</sup> 박기순은 전주면장과 함께 자신이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중심으로 주요 역을 설치하고 자본주의적 판형을 다시 짜는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박기순은 지역 유지로 등극하기 위해서 다양한 총독부 정치와 관련을 맺고 있다.<sup>35)</sup> 특히 사이토 총독이 문화정치를 표방한 후 고도의 민족분열정책으로 친일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시기 박기순은 전북 여산군수를 그만두고 중추원 참의가 되었다. 옛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미 고조부 시기에 농민으로 전락하였고 그 또한 미곡상이었기 때문에 군수가 되고 중추원 참의가 된 것은 이 지역에서는 내로라하는 지역유지로 등극한 것을 의미하였다. 그는 1925년부터 1927년까지 3년간 중추원 참의가 되어 전북 지역 시정에 대한 고문역할을 하였다.

그는 중추원 참의가 되기까지는 총독부 시책에 다양하게 협력하였다. 1914년 3월 10일 전라북도령 제2호에 의거 부내 4면을 폐합, 정리하고 비로소 전주면이 설정되었을 때, 면장 강태평의 추천으로 총독부는 1914년 10월 면 참여원 10명 중 한명으로 박기순을 위촉하였다. 함께 위촉된 이강원, 신언태, 박영래, 신태빈, 유두환, 정석모, 이해만, 이원상, 김창섭 등은 이후 전주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sup>36)</sup>

34) 『국역 전주부사』, 294쪽.

35) 지역유지에 대하여 지역엘리트, 지역리더, 지위집단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지수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지배체제, 역사문제연구 3, 역사비평사, 1998; 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경기도 안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2, 부산경남사학회, 2009;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 본고에서는 1876년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양성하기 시작한 친일파를 포함하여, 정경유착구조를 통해 개인 혹은 집단이 지역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개인 혹은 집단을 지칭하고자 한다.

36) 全州府, 『全州府史』, 1943. 328쪽.

또한 그는 1926년 9월에 전라북도 농회 부회장을 맡아 1934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sup>37)</sup> 1927년 8월 전북가축공진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28년 11월 '쇼와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5월에는 조선박람회 평의원, 1931년 2월 조선농회 통상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박기순은 일제강점기 전북의 조선인측 대표로서 총독부의 각종 정책을 지원하는 지역 유지로 등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는 상업자본으로 출발하여 총독부의 이리와 전주지역의 식민도시 개발을 활용하여 막대한 토지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본가로 변신한 케이스이다.

한편 박기순이 재계에 등장한 터닝 포인트는 1920년 3월 3일 전주면 다가정에 삼남은행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 삼남은행은 공칭자본금 1백만(불입금 250,000)으로 중역진은 전무이사 金駿熙를 비롯하여 이사 朴炳哲, 金丙熙, 白仁淑, 李海晚, 감사 牧村芳平, 殷成河, 李駿象을 선임하였다. 이들은 당시 전주에서 대지주, 신문사, 상업 등에 관계하고 있던 지역유지들이었다. 총주식수 20,000주로 김준희가 4100주로 가장 많고, 박기순은 3500주로 제2대주주이다. 그외 조선인 金永哲(1000), 朴永根(950), 馬學鎭(600), 朴碩奎(500)와 일본인 佐佐木志賀二가 500주를 가지고 있다.<sup>38)</sup>

그런데 사장 박기순과 전무 김준희 사이에 배임을 둘러싸고 함께 경영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1922년 11월 3일, 삼남은행 두취 박기순은 전무 김준희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는데, 결국 1923년에 둘은 결별하였다.<sup>39)</sup>

김준희가 주식을 모두 처분하자 박기순은 중역진 이사와 감사도 대폭 물

37) 1910년 4월 13일 전익수리조합의 초대 조합장은 구로다 니헤이로서 박기순은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전북농지개량조합, 『전북농조80년사』, 1988.

38) 中村資郎편,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

39) 『동아일보』 1922.11.3. 1927년 5월에 교풍회가 해산된 후 전주 유식계급 청년들이 민우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김준희를 뽑아 교풍회 사무소와 그 일부자산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국역 전주부사, 295쪽), 지역 세력 다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같이 하여 일본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1923년 전무직을 없애고 대신 상무이사를 자신의 혈육인 박준철(朴俊喆)로 바꾸고 일본인들을 대거 참여시킨다. 이에 따라 일본인 北本松次郎, 山本悅藏, 大木良作(이상 1923년), 山本悅藏, 北本松次郎(이상 1925년) 등이 중역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인 이사도 金和炯, 印昌桓, 金永哲, 朴碩奎, 朴禧沃 등으로 교체시켜 버린다. 이러한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삼남은행은 2년 만에 불입금 400,000원, 적립금 25,600원으로 늘어났다. 대신 배당률은 6%로 조정하였다. 감사도 李錫漢, 河本國三郎, 松本福市, 金應斗로, 지배인도 葛西理作, 吳泰俊으로 바꾸어 삼남은행은 한일 합작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김준희가 삼남은행을 떠남으로서, 박기순이 6055주로 최대주주가 되었고, 그의 아들 朴榮喆이 2,000주를 사들여 새로운 대주주로 나섰다. 이외 대주주는 李海晚(560), 柳彰根, 朴禧沃(남원, 중추원 참의)<sup>40)</sup>, 金和炯, 印昌桓, 朴俊喆(각500), 朴判喆(450), 山本悅藏(400), 文鐘龜, 朴映喆, 河本國三郎이 각각 300주를 매도하였다.<sup>41)</sup> 1925년경에는 朴俊喆(510), 朴信喆(400)등 박기순 일족이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결국 삼남은행의 경영구조의 특징은 설립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일본인이 대거 중역진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과 주식을 박기순 일가가 대부분 소유하는 구조로 변동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역과 대주주가 박기순을 중심으로 박영철, 박준철, 박관철, 박신철, 박쾌철 등 혈육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식민지기에 형성된 세습적인 주식구조의 원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0) 『朝鮮人士興信錄』, 415쪽.

41) 中村資郎편,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3.

## 2. 박기순의 전북지역 기업·사회단체 네트워크 형성 실태

그러면 박기순은 삼남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어떠한 기업에 참여하면서 기업이 네트워크를 확장해갔는가.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그가 다른 기업에 중역과 대주주로 참가한 경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박기순이 중역으로 참여한 기업 실태

창립	기업명	자본금 주식정보	중역진	대주주
1914. 2.22	全北輕便鐵道(株)	600,000(주식수) 12000(주주수) 233 배당률8% (전주이동면상생리)	(전무이사)河本國三郎, (이사)大澤藤十郎 <sup>42)</sup> , 山崎增平, 森田唯彦, 朴基順 (감사)中屋堯 駿, 永原邦彦, 嶋谷秀 三郎	中屋堯駿(4974) 永原邦 彦(1134) 山崎增平(393) 朴基順(336) 大澤藤十郎 (335) 趙命九(250) 森田 唯彦, 嶋谷秀三郎, 藤吉 靜男, 宍倉恒, 小野田信 太郎, 眞園悅次郎(각200)
1919. 2.25	朝鮮蠶業(株)	250,000원 87,500원 배당기재없음 익산익산면이리	(사장)大橋與市(이사) 倉田光藏, 片桐和三, 今村一次郎, 板井信藏, 朴基順, 扇米助, 光岡 正行, 山崎增平, 金丙 熙 <sup>43)</sup> (감사)森谷元一, 宮崎保一, 趙重煥, 田 阪佐三郎	중역과 동일
1920. 3.20	全北畜産(株)	200,000원 배당 0% 익산황등면황등리	(사장)今村一次郎(전무 이사)片桐和三 (이사) 山崎增平, 青田竹次, 橋木央, 朴基順, 金炳 順 (감사) 永原邦彦, 眞田壽助, 倉田光藏	중역과 李培源, 林秉喆, 川崎藤太郎, 森谷元一

출전: 中村資郎면,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 1923.

42) 당시 금강사에 등록된 단도(檀徒)로는 대주주였던 宮崎佳太郎과 熊本梨平를 비롯하여 大澤藤十郎, 下田吉太郎 등이 있었다.

43) 김병희는 1921년 당시 동아일보 익산지국장이었다(「本社益山支局設置(益山郡裡里): 支局長 金丙熙氏, 總務兼記者에 林宗桓氏, 『동아일보』 1921.3.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기순은 전북경편철도, 전북잠업, 전북축산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중역진에 참여하고 있다. 위 세 기업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에 해당되며, 박기순은 삼남은행의 재력을 토대로 철도업, 잠업, 축산업 분야까지 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전북지역 조선인만으로 시작한 기업도 점차 일본인과 합작형태를 취하고 있고, 일본인이 설립한 기업에도 조선인이 참여하여 함께 경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중요기업 내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민족성보다 이윤창출을 위한 계급성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주 출신 기업가들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익산, 남원, 군산 등에서 기업 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기역으로 기업가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기순과 전북지역 자본가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직과 사회단체를 만들어 전북지역 재계의 커뮤니티를 형성해갔다. 박기순은 1918년 전주면 상담역을 맡았고, 1919년 3·1운동이 민족적으로 일어나자, 이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북자성회(自省會)를 조직하여 전주지부장을 역임하였다. 여기에 같이 참여한 인물은 백남신, 박영래, 유두환 등으로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았다.<sup>44)</sup> 이들 모두 전주면 상담역으로 추천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자성회는 반민중적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는 공직과 사회단체, 학교조합을 만드는 것에도 앞장서 총독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1920년에는 민선 전주면 협의회원이 되었고, 1921년 전주교풍회(矯風會)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교풍회는 1915년 7월에 이강원을 초대회장으로 부회장은 면장 김성규가 맡았다. 고문으로는 도장관 이두황 전주군수 김진현 및 전주 경찰서장 김투(金透)를 추천하였다. 이 단체도 전주면사무소에 두고 일반 민심을 각성시키고 풍속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로 근면절약, 국기명

44) 『국역 전주부사』, 296쪽.

심, 낭비 재제, 공덕 공익심 함양 조성, 이웃사랑, 미신타파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독부 당국으로서는 성과를 견었다고 하였다.<sup>45)</sup>

그는 또한 학교설립에도 관여하여, 전주 고등 보통학교, 전주 공립 여자고 등보통학교 설립에도 설립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다가고, 서천교, 덕진 공원, 신사 건설에 대하여 기부하여 전주의 식민도시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 그는 마침내 조선인으로서 가장 큰 명예직인 조선 총독부 중추원참의에 임명되었다. 이후에도 전라북도 지역유지로서 그의 역할은 계속되어 1930년 전라북도농회 부회장, 1931년 조선농회 통상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다양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전통적인 양반처럼 권위 있는 지역유지가 아니라, 갑자기 만석군이 된 유지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인 지역유지는 다음과 같다. 모두 전북도지사로부터 중추원 참의원과 군수로 추천받은 인사들이다.<sup>46)</sup> 전주군 전주면의 지역유지는 鄭石謨, 朴永根, 柳斗煥, 李康元, 옥구군은 李完植(임피면), 金相熙(미면), 익산군 익산면은 朴基順, 정읍군 용북면은 殷成河, 순창군은 金英武, 무주군 鄭鍾振, 고창군은 千章郁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의 몰락양반, 상인, 관료 등으로서 일제강점기 총독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전북지역의 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테라우치, 하세가와, 사이토 총독을 거치면서, 전북지역에는 새로운 신진 친일파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들 중 상인, 아전, 농민 등 전근대시기 신분제에 제약을 받던 인물들도 상업·토지자본을 축적하여 산업자본가로 변신한 케이스가 많다. 이들이 일제의 새로운 도시개발과 함께 많은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공적활동과 각종 관주도형 사회단체 활동, 기부와 자문을 통해 총독부와 연관을 맺으면서 전북지역의 새로운 부르주아 세

45) 『국역 전주부사』, 294쪽.

46)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 조사단 조사1과, 2007 (국가기록원 소장).

력으로 등극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총독부와 식민지 지배정책을 원호하기 위한 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것은 지역 내 민족주의 사회주의 운동세력으로부터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IV. 조선인 권력형자본가의 중앙 재계 진출의 특징

일제강점기 지역에서 권력형 자본가로 성장하여 중앙 재계로 진출하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은 당시 일본제국과 조선 식민지라는 종속적 시대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제가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을 ‘생명선’으로 인식한 점. 일본이 제국화를 위해 조선에 일본어 양성기관을 세워 지역의 인재들을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점. 일제 강점 이후에 자신들이 양성한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점 등이 그것이다. 박영철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면 박영철은 어떻게 지역에서 성장하여 전국적 레벨의 대표적 자본가로 진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박영철의 권력형 자본가로서의 성장과 커뮤니티 실태

###### 1) 일본내각의 친일파 양성과 박영철의 선택

박영철이 조선인 재계의 대표적 부르주아계층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 조슈벌 군부라인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 총독부 관료로서 정책을 수행한 점, 그의 부친 박기순의 재력이 든든한 뒷배로 작용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 박기순의 재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식민지 침략의 주요 라인 조슈벌 군부라인과 관련된 경위와 식민지 행정관료로서 총독부의 식민도시 개발과 관련되어 활동하게 된 실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그가 식민지 침략 라인인 조수벌 라인과 연관된 경위는 병합 이전 일본어 양성기관 삼남학당 단장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일본유학을 가게 된 경위는 일본해외교육회(회장 本多庸一)가 설립한 일본어 양성기관 삼남학당(三南學堂, 1899년 설립) 고지마(小島今朝次郎) 단장의 권유에 의한 것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감시와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행을 감행하였다.<sup>47)</sup> 일본내각은 친일파 양성계획을 이미 1880년부터 수립하고 있었고, 일본내각이 조선어학생을 모집하고 일본유학을 추천하여, 밀정으로, 군인으로, 통역가로 활용하였다. 조선인들에게는 학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봉사를 약속하는 조건이었다.<sup>48)</sup> 그는 육군사관학교 예비교 역할을 하던 세이조학원(成城學園)과 육군사관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선택은 한국 강제 병합으로 인해 이른바 ‘출세’ 기회가 되어 권력형 자본가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sup>49)</sup>

그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은 1902년부터 1903년까지이다. 일본 육사 15기로서 최정예부대 고노에(近衛) 사단 기병연대 기병으로 근무하였으며 연대장은 훗날 조선군사령부 사령관, 제2대 조선총독으로 되는 하세가와이다. 박영철은 한국 육군기병 참령 훈5등 신분으로 러일전쟁에 참가한 공적으로 1908년 일왕으로부터 서훈과 포상금을 받았다. 당시 일왕은 ‘아군(일본군, 필자)을 따라 직접 전투에 참가하거나 정찰임무 혹은 통역, 기타 제반 군무소관 철도관리로서 군용철도 건설에 조력하거나 지방관으로 물자를 공급한 사람들에게 수여’하였다.

이 서훈을 집행한 결재라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토 히루부미(伊藤博文) 통감 추천으로 육군대신 작자 테라우치(寺內正毅)가 제출하여 내각총리대신 사이온지(西園寺公望)가 행정부 결재를 마치고, 사이온지가 ‘天皇’에게 상신

47) 박영철, 『五十年回顧』, 1929, 96쪽.

48) 海軍省, 外出211 外務省照會 朝鮮語學生徒募集及學資交付の方法等定方, 『公文類纂 明治13年 前編 卷20 本省公文 學術部』, 1880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49) 박영철, 위의 책, 100~101쪽.

하여 최종결재를 받아 수여하였다. 50) 이를 통해 볼 때, 박영철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 러일전쟁에 참여하여 일본을 위하여 종군하였고, 1908년에는 대한 제국하 육군 기병으로 있으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육사 15기 그의 동기생들은 1904년 2월 16일부터 러일전쟁에서 원수부(元首府) 관전장교(觀戰將校)로 종군하여 생사고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고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기병과의 유동열(柳東說), 박영철, 보병과의 김기원(金基元), 김응선(金應善), 남기창(南基昌), 이갑(李甲), 포병과의 박두영(朴斗榮), 공병과의 전영헌(全永憲)이다. 이들은 한말 육사 유학생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행운아’로 불렸으며 한말의 무관양성소인 무관(武官)학교, 연성(研成)학교, 유년학교에 대거 진출하였다. 하지만 한국이 강제 병합되자, 유동열, 이갑은 독립운동계열로 나갔으나 박영철은 출세를 선택했다. 당시 근위사단장이던 하세가와가 대장으로 진급하여 조선주둔군 사령관,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그들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처럼 박영철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맥으로 수뇌부와도 연결되고 자신의 동기생들과 함께 한국 강제 병합 이후에도 조선주차사령부, 조선주차헌병대 등에 장교로 소속되어 권력지향형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

## 2) 총독부 지역 행정 리더의 경험과 조선인이라는 한계

박영철의 지역 커뮤니티는 익산·논산 군수시절과 전라북도 참여관, 함경북도 강원도 지사 시기의 관료 네트워크가 기본적인 커뮤니티로 볼 수 있다. 테라우치 총독, 하세가와, 사이토, 우가키, 미나미 총독까지 일본 육사시절의 상관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군 사령관이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의 입지는 명실상부하게 변화하였다.

50) 內閣, 韓國陸軍騎兵參領勳五等朴榮喆外二十七名叙勳及賜金ノ件, 叙勳裁可書, 明治四十一年·叙勳卷四·外國人二, 1908.2.4.

하지만 그도 또한 조선인으로서 민족적 차별은 여전하였다. 박영철은 절대로 정무총감이나 총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관직생활 중 가장 높 이 올라간 것은 지방도지사이며, 결정권이 없는 중추원 참의이다. 그리고 자 본가로서 직접 삼남은행의 대주주로 참가한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혈통 적으로 전북지역 최대 재벌인 박기순의 아들이라는 점이 그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군면제가 완전히 선포되기 이전까지 테라우치 총독은 일본의 법령을 조 선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 조선인들은 조선인들로 하 여금 지배하도록 하였다. 당시 전북지사, 군수는 모두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 인이었고, 실무진은 일본인으로 배치하였다.<sup>51)</sup>

이 시기 박영철은 군대를 예편하고 행정관리직으로 전환하였다. 가장 먼저 부임한 곳은 전북 익산군수이었고, 이리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하였 다. 조선총독으로서는 일본 본토의 식민지 경영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전주 평야를 일본 본토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속전속결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 역할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근대적인 교육 을 받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잘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였 다.<sup>52)</sup> 바로 박영철은 그런 인물이었다. 그로부터 약 15년간 행정관리직으로 오랜 관료생활을 영위하였다.

그가 익산군수로 오게 된 것은 하세가와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 다. 하세가와는 조선주차군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테라우치 총독의 죠수벌 직속 후배이기 때문이다. 1916년 10월 16일 육사시절 고노에(近衛)사단에서 상관으로 모시던 하세가와가 조선총독으로 오게 되면서 그의 관직생활은 탄 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그는 1918년 함북 참여관이 되었고 고등관 5등에서 4등으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3·1운동으로 민족적 시위운동이 발생하였을

51) 1910년 병합 당시 13도의 도장관 중 6인은 구한국정부의 관찰사를 임명하고, 부운 에는 일본인을 임명하고, 군수는 전원 조선인으로 충당하였다. 칙령 제383호, 칙령 제396호, 관보 1910년 10월 1일.

5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III-2, 92쪽.

때, 그는 일본정부로부터 훈4등 서보장을 받았다.<sup>53)</sup>

하세가와는 3·1운동에 대해 군을 동원하여 진압한 것이 무단정치로서 비판을 받아 사이토(齋藤實)총독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이리를 개발한 공으로 박영철은 이후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1921년 2월 12일 전라북도 참여관 고등관 3등으로 승진, 1924년에 조선총독부의 명을 받아 봉천, 천진, 북경, 남경, 상해, 대만, 여순, 안동 등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 1924년 12월 1일 강원도 지사 고등관 2등으로 승진하였다.<sup>54)</sup>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계속 총독부의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식민지 지배정책을 추진하여 한상룡과 함께 조선인 가운데 대표적인 핫라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26년 8월 13일부터 1927년 9월 19일까지 함경북도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 시기는 노구치가 흥남 질소 비료주식회사를 건설하려던 시기로서 흥남개발을 위해 함북지사가 부지결정, 도로건설 등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었다. 또한 함흥에서 흥남으로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 모색하던 시기이다. 1927년 5월 21일, 함경도 지사 시절(동년 9월 19일까지 재임)에 박영철은 총독부 식민지의 지배정책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영 기업 동양척식의 감사가 되어, 조선인으로는 유일하게 중역진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도 또한 조선인으로서 민족적 차별은 여전하였다. 박영철은 절대로 정무총감이나 총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관직생활 중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은 지방 도지사이며, 결정권이 없는 중추원 참의이다. 그리고 자본가로서 직접 삼남은행의 대주주로 참가한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전북지역 최대 재벌인 박기순의 아들이라는 점이 그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53) 최종 결재자는 일왕이며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테라우치 마사타케이다 (朝鮮總督府 郡守朴榮喆外四名叙位ノ件, 叙位裁可書·大正七年叙位卷八, 1918.3.11.~1918.4.9.

54)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추천에 관한 건」, 『박기순 이력서』, 1921.

## 2. 조선상업은행을 통한 중앙 재계 진출의 식민지적 특징

박영철에게 중앙 재계 진출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조선상업은행의 부행장이 되면서부터이다. 그가 부행장이 된 것은 당시 총독부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부실 금융기관 정리정책 추진과 연관되어 있다. 총독부는 조선인이 경영권을 쥐고 있었던 대한천일은행을 실업은행과 합병시켜 일종의 국책회사로 조선상업은행으로 재편하였다. 이 은행의 대주주는 조선총독, 이왕직장관, 조선상업은행우회가 가장 큰 대주주로 바뀌었고, 박영철이 7,000주를 사들여 4번째 대주주가 되었다.<sup>55)</sup> 합병이후 조선인 행장 조진태는 부행장으로 강등되고, 대주주도 조선인 대 일본인이 3대 7로 역전되어 조선인들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때 행장은 관료출신으로서 낙하산 인사된 와다 이치로(和田一郎)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일제에 빼앗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영철은 당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상황을 파악하고 국내에도 유사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삼남은행과 대형은행 합병을 모색하였다. 그는 1927년에 삼남은행의 경영권을 박기순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 1928년 3월부터 합병교섭을 시작하여 한달 뒤인 4월 23일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쉽게 결정되었다. 삼남은행 합병은 5월 당국 인가를 받아 6월 16일자로 실행되었다. 상업은행은 자본금 100만원이 증가하여 8,925,000원의 대자본에 전국을 연결하는 지점망을 가진 대형은행이 되었다.

박영철이 삼남은행 합병 후 6개월 뒤 '신은행령'이 시행되어 국내 금융계는 큰 파란을 몰고 와 200만원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없

55) 조선상업은행은 자본금 8,925,000원, 불입금 4,475,000원, 적립금 1,138,000원으로, 배당률은 6%이었다. 주식수는 178,500원이었고 주주는 1261명이었다. 대주주와 보유주식은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2679), 李王職長官(1010), 朝鮮商業銀行友會(14868), 朴榮喆(7000), 仁川米豆取引所(6697), 中村イセ(5153), 古城梅溪(4200), 古城萱堂(4173), 山口太兵衛(4200), 和田俊一(3650), 昭和證券會社(3894), 朝鮮火災海上(2820), 殖産銀行(2358), 釘本藤次郎(2428), 中村弘(2168), 内海淑郎(2130), 朴基順(2750) 등이다(『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

게 되었다.<sup>56)</sup> 박영철은 총독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력은 그가 은행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합병과 함께 그는 조진태를 누르고 부행장이 되었다. 이것은 지역출신 관료출신인 그가 본격적으로 중앙 재계에 진출하는 신호탄이었다.

그가 경성의 유명한 조선상업은행의 넘버 투가 되면서 중역진과 대주주와도 교류를 확대하였다. 상무이사 김진옥, 이사 조진태, 전무이사 山下秀隆, 상무이사 金鎮玉, 이사 趙鎮泰, 山口太兵衛, 古城菴堂, 감사 富田儀作, 進辰馬, 張斗鉉 등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토미타와 구기모토는 신의주와 인천에서 자본을 축적한 대표적인 재조일본인이며, 구기모토는 경성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재계의 중진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고 단점은 홍보하지 않는 후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sup>57)</sup> 이러한 점은 데라우치부터 미나미총독까지 그가 한상룡과 함께 조선인 자본가 핫라인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로부터 2년 후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사장이 경질되고 박영철이 사장으로 등극하였다.

박영철이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영업전략 변화와 관련이 깊다. 종래 일본인 위주에서 조선상공계와 거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금융기관 최고점포로 꼽히던 종로지점장과 조선인 거래처가 많은 지역 점포에 조선인 지점장을 선임하였다. 삼남은행의 이리, 전주 두 지점은 박영철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컸다.<sup>58)</sup> 박영철은 공황기에 박기순의 주식을 받아 10,1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sup>59)</sup> 이렇듯 박영철은 금융자본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토지의 민영회, 금광의 최창학, 방직의 김연수와 함께 조선인 4대 재벌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60)</sup>

한편 상업은행에서 입지를 굳힌 박영철은 중앙 재계에서 자신의 커뮤니티

56) 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 100년사 1899-1999』, 1989, 210-213쪽.

57) 『윤치호일기』, 1933~1939년(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수록)

58) 『조선상업은행 80년사』 214쪽.

5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

60) 三千里社, 『秘密探偵局』, 『三千里』제4권 제9호, 1932.9.1.

를 더욱 확대시켜갔다. 그는 중역겸임과 대주주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계 네트워크를 구축해갔다. 세계경제공황이 발생하고 일본제국과 조선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1930년 11월 15일 조선미곡창고가 경성 남대문에 만들어졌다. 그는 조선인으로서 유일하게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가 중역이 된 것은 조선산미 이출을 조절하기 위한 창고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이다.<sup>61)</sup>

그리고 세계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독부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 금전, 부동산 등 금융적인 신탁 업무와, 국채 지방채 사채 또는 주식모집을 담당할 기업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1932년 12월 16일에 한일합작으로 설립된 조선신탁(주)이다. 이 회사는 회장 한상룡을 중심으로, 사장 谷多喜磨, 중역 이사 色部貢, 朴榮喆, 閔大植, 金漢奎, 張稷相, 감사 馬越恭平, 渡邊彌幸, 金季洙등이 자본금 1천만원(불입금 250만)으로 설립하였다. 한상룡은 이완용의 외손으로서 박영철과 함께 재계의 대표적인 다크호스이다. 한상룡과 중역진에 참가한 민대식, 김한규, 장직상, 김연수 등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톱 레벨에 있었던 재벌들이었다. 일본인 谷多喜磨는 총독부 관료출신으로서 낙하산 인사였다.<sup>62)</sup> 이 회사에 부친 박기순이 1933년 320만평 시가 150만원의 부동산을 조선신탁에 신탁했다.<sup>63)</sup> 이로 인해 박영철은 중앙재계에서 더욱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박영철은 1932년경 조선철도(주)(자본금 5450만원)의 중역진에 이사로 참가하였다. 이 회사에는 사장 大川平三郎, 중역진에 전무이사 新田留次郎가 있다. 新田는 총독부의 철도맨으로서 낙하산 인사로 철도의 총독이라고 불리던 인물이다. 중역진가운데 東條正平은 운송계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賀田直治는 일본 궁내성 관료를 지낸 조선피복회사 낙하산 인사출신이고 경성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배태량 기업가이다. 그는 이외에도 조선맥주

6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

62)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

63) 高橋三七, 『事業と郷人』 實業タトムス社 大陸研究社, 1939.

(주), 북선제지화학공업 등 총독부가 컨트롤할 만한 기업에 감사로 참가하여 정·재계 인맥을 넓혔다.<sup>64)</sup>

한편 박영철은 전시체제가 일본제국정부와 총독부가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만들어 전쟁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선인측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주도하였다. 그는 우가키 총독과 미나미총독 재임 시기인 1933년 6월 3일부터 1939년 3월 10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맡았으며, 1937년 4월 20일에는 만주국 경성주재 명예총영사를 받아들였다. 또한 1934년 최린(崔麟)이 총독부 후원을 받아 내선일체 등을 강령으로 해 조직한 시중회(時中會)에 참가하였고, 일본의 침략전쟁 지지 단체인 조선대아세아협회 상담역을 맡았다. 이외에도 일본인 유력자와 한국인 예측자본가가 합동으로 조직해 ‘일선융화’(日鮮融和)를 표방한 교화단체인 동민회의 부회장과 경성부 교육회 부회장, 경성방호단 중구 제2분단장을 맡았고, 산림회·사회사업협회·방송협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각종 친일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sup>65)</sup>

1937년 중일전쟁을 선포한 후, 1938년에 일제는 세력권내 모든 영토에 국민총동원령을 내렸다. 조선은 대륙전진병참기지로 규정되었고, 육군 군벌 출신 미나미 총독은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조선공업화정책을 전면내세웠다. 이에 따라 조선의 모든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했다. 구체적인 총동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그는 조선상업은행 사장직을 물러났다.

전시체제가 중앙 재계는 더욱 밀실정치화하였다. 조선인 만주이민 문제,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 설치, 사상보국연맹 설치 등 일본내각과 총독부가 추진하는 중대한 사안과 상업은행 대출문제 등이 당시 유명한 조선요리집 명월관<sup>66)</sup>, 대화관, 키시노 료 레스토랑, 윤치호 자택, 조선호텔 등에서 논의되

64)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5. 『事業과 鄉人』.

65) 朴榮喆, 『五十年の回顧』, 大板屋號書店, 1929 ; 『朝鮮同胞に對する教訓』, 1935.

66) 우리나라 최초 조선 요리집 ‘명월관’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경제인들이 술, 요리와 함께 담소를 나누던 공간이자 인물과 성품이 뛰어난 명기들이 모여 있는 사교장이었다. 밀실정치의 관행이 유지되던 곳이었다.

었다.<sup>67)</sup>

박영철은 1938년 일본과 그 세력권에 총동원체제가 발효되고, 총독부가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 연맹을 만들 때 총무를 맡았으며, 조선지원병 제도 제정 축하회에서는 발기인이 되었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가 제2의 중추원으로써 시국대책조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총 97명 가운데 조선인 위원은 11명이었다. 이 때 박영철은 박중양(朴重陽), 김연수(金季洙) 등과 함께 위원이 되어 총독의 자문사항을 심의했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준비위원, 조선국방의회연합회 상임이사까지 역임하였다. 미나미 총독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동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적임자로 박영철을 선택하였다. 박흥식, 김성수, 김연수, 최창학 등 많은 조선인 재벌기업가들이 총동원시스템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 총독부는 반대급부로 전시특별기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sup>68)</sup>

그는 총동원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단체의 발기인, 준비위원, 상임이사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전시체제가 총독부의 파쇼적 총동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였다. 전시체제기는 일본 육사 출신의 박영철이 한상룡과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정재계 거물로 거듭났던 시기이다. 그러나 그는 1939년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일제의 패전과 양자를 두게 된 그의 일족의 중앙 재계 네트워크는 연속되지 못하였다. 그의 사후 일왕으로부터 서훈을 받게 되었을 때, 이유는 1930년대 세계불황에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총독부를 돕고, 사변이 있을 때 내선일체 구현을 강조하고 황국의식 양양에 열심이었기 때문이라 한다.<sup>69)</sup> 그는 일본과 한국이 일체가 되어 ‘대동아공영’을 이룩한 바, 평화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주권보다는 일본의 근대 문명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67) 『윤치호일기』, 1933~1939년.

68) 박흥식, 김연수 등 전시특별자금지급에 대해서는 김경남, 앞의 논문, 2014 참조.

69) 故朝鮮總督府中樞院參議朴榮哲勳章加授ノ件, 叙勳裁可書 昭和十四年 叙勳卷三 內國人三, 1939.2.28.-3.18.

일제의 패망으로 그가 일제의 수뇌부와 함께 평생 동안 축적해 온 그의 인맥과 전시체제가 적극적인 친일 활동은 오히려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혀 현재까지도 역사적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 V. 맺음말

본고는 한국 근대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특징과 조선인 자본가의 세습적·복합적 성장 유형을 밝히기 위해, 대표적 조선인 자본가 박기순과 박영철을 중심으로, 식민정권의 지역 도시개발이 조선인 부르주아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조를 검토하였다. 특히 전북 이리지역 도시개발과 지역형·권력형 자본축적 실태와 지역 자본가 커뮤니티를 밝히고, 어떻게 중앙계급으로 진출하여 톱클래스의 조선인 자본가로 성장하였는지 그 식민지적 특질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전북지역 박기순·박영철 일가의 자본축적 유형은 총독라이নে 밀착된 권력형, 지역형 자본축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세습적 가족경영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민도시 개발의 특징이 총독부와 일본인대토지자본가, 관권과 혈연이 결합되어 소수의 대토지자본가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영철이 중앙계급으로 진출한 것은 부친 박기순의 축적된 토지자본과 금융자본 덕분이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총독부 정권과의 결합으로 톱클래스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제국과 식민지라는 관계 속에서 2등 국민의 한계, 생산제가 아닌 금융 중심의 경영구조, 장자 중심의 세습적 가족 경영체제로 머물고 말았다. 이 한계 때문에 박영철은 중앙계급으로 진출하였지만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자본주의 경영체제로는 성장할 수 없었다. 결국 식민지 정권에 밀착되어 성장 일로를 달리던 그들의 사망과 일본의 패전으로 총독부가 사라지자, 박기순·박영철 일가의 세력도 재력도 쇠퇴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근대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되는 구조와 지역에서 자

본을 축적하여 경성 중앙 재계로 진출한 지역형, 권력형 복합적 자본축적 유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 정치권력과 지역의 도시개발 상호연관 구조 속에서 자본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사 연구가 향토사에 매몰되는 한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경강 일대 일본인 자본가들은 러일전쟁 전후로 군산항을 중심으로 익산 일대에 광범위한 토지를 사들여 농장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농장은 호소가와(細川), 후지(不二), 구마모토(熊本), 동적(東拓), 박기순 농장 등이다. 박기순이 대토지자본가로 등극한 것은 사환으로 출발하여 미곡상을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지에 투자하여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을 강제 병합한 뒤, 만경강 일대 비옥한 평야의 미곡 수이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조슈벌 출신의 테라우치 총독과 하세가와 조선군사령관은 조선인 친일파를 도장관과 군수에 임명하여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였다. 전북도장관 이두황과 익산군수 박영철은 이미 1880년대에 진행되고 있던 친일 파악성계획에서 포섭되어 친일파로 신임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두황은 1894년에 죄를 지어 일본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던 자이고, 박영철은 일본어학당에 포섭되어 독일,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일전쟁에서 스파이로 활약한 공으로 서훈을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이다. 같은 육사 출신 유동열 등이 독립운동을 하러 갔으나 그는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친일을 선택하였다.

일제의 권력 증추에 있던 조슈벌 라인과 박영철의 연결은 육사 시절 하세가와가 자신의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그 선배인 초대 총독 테라우치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총독부는 이리 신도시를 개발하여 전통적으로 중심도시였던 전주보다 군산과 익산 일대를 개발하여 전복의 지평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14년 군산항을 군산부로 승격시키고 소재지 전주면을 소규모로 유지하고, 익산군 남일면을 독립시켜 이리를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끝냈다. 박영철은 일본이 대토지자본가들과 그의 부친 박기순과 합작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만경강 일대 개발 정책의 초점은 이리 신도시를 개발하고 전북경편철도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호남평야의 미곡을 수이출하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호남선의 전주 개통을 반대했던 박기순은 전북경편철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이 경편철도 기성회 회장이 되었고, 총무를 전주면장 김성규를 시켜 철도 개발 업무를 전주 면사무소에서 추진하였다. 이때 그는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개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토지자본을 축적하였고, 총독부의 절대적인 신임까지 받게 되었다. 박기순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토지의 일부를 신도시의 도로와 전북경편 철도 연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 기부하고, 자신의 토지 자산을 늘리는 수법으로 1931년 현재 320만평 시가 150만원을 소유한 토지왕으로 거듭났다.

박기순이 산업자본가로 변신한 터닝포인트는 삼남은행의 사장을 역임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전북경편철도, 전북축산, 전북잡업 등 기업에서 중역겸임과 대주주 방식을 통해 백남신, 박영래, 유두환 등과 함께 전북지역의 자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편 행정적 네트워크는 그가 대한제국기 사헌부 감찰을 지낸 적이 있고, 식민지 행정부에서 여산군수, 중추원 참의를 지내면서 형성하였다. 그리고 전북 농회에서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하였고, 그 외 은행, 학교, 조합, 면협의회, 신사창설 등 전북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사회단체로서 전주자성회, 전주교풍회 등 반민중적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협력하여 지역민과 갈등관계가 조장되었다. 이렇게 박기순은 새로운 정치권력의 정책을 도우면서 정치권력형, 지역형 자본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박기순의 대토지자본가와 산업자본가로서의 기반은 박영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중앙 재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박영철은 한상룡과 함께 조선인 재계의 대표가 되어 총독부 권력과 핫라인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익산군수 이후 하세가와 사이토 총독의 지원으로 함경북도 장관, 강원도 장관, 중추원 참의 등 초고속 승진하였으나, 2등 국민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승진은 불가하였다. 박영철이 산업자본가로 터닝한 포인트

는 바로 이 시점이다.

박영철은 권력과 밀착하여 조선인 은행을 통합한 조선상업은행의 톱클래스가 되어 중앙 재계로 진출하였다. 이후 조선미곡(주), 조선신탁, 북선제지화학공업 등 주요 기업에서 중역겸임이라는 형태로 자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는 전시체제가 동민회, 시중회, 구월회 등을 조직하여 조선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며, 각종 시국관련 단체를 조직하여 총독부의 총동원체제를 지지하였다. 그는 총독의 신임은 물론 신다, 가다, 도조 등 재조 일본인 톱클래스 기업가와 한상룡, 민대식, 김연수, 최창학, 박흥식 등 당대의 톱클래스의 조선인 자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박기순과 박영철은 일제강점기 근대의 새로운 부르주아 지배 계층으로 뿌리내렸다.

새로운 식민지정부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부르주아계층의 탄생이라는 이 정경유착 구조는 자본주의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정경유착 구조는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라는 관계성 속에서 박영철과 같이 조선인은 최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언제나 2등급 조선인이라는 한계 속에서 추진된 제한적인 것이었다. 한편으로 일본의 패전으로 급격하게 상부구조가 바뀌게 되자, 반민족 반역자로 낙인찍혀 정치적 반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냉소 받고 있는 처지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역사적인 재판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식민지 권력에게 아부와 견제를 적절하게 하던 박승직 일가가 해방 이후 두산그룹이라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격변하는 세계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자본주의는 정치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습적인 자본주의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건전한 자본축적 구조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8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東亞日報』 『每日申報』 『京城日報』  
『公文類纂』 『叙勳裁可書』  
『구한말한반도지형도』 『삼천리』  
『익산군사정』, 1928.  
高橋三七, 『事業と郷人』, 實業タトムス社 大陸研究社, 1939  
『윤치호일기』, 1933~1939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대장성관리국,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조선편 제2분책, 1947  
박영철, 『五十年の回顧』, 大板屋號書店, 1929.  
\_\_\_\_\_, 『朝鮮同胞に對する教訓』, 1935.  
『조선총독부관보』, 각 년도.  
조선총독부, 「전주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 지령안(1)」, 1914  
조선총독부 철도국 『철도30년사』 1914, 1928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추천에 관한 건』, 1921  
中村資郎譯,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각년도.  
『齋藤實文書』 第12卷 「朝鮮人將校の狀態」, 「朝鮮軍人及朝鮮步兵隊ニ就テ」 1925  
김경남,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 2015  
\_\_\_\_\_, 「전시체제기 중역겸임제를 통한 자본가 네트워크와 전시동원체제」, 『전  
북사학』 45호, 2014  
\_\_\_\_\_, 「한말 일제초기 조선본점기업 자본가네트워크의 형성」, 『지역과 역사』  
제12호, 2003  
김선영,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지역 자본가의 성격과 활동』, 울산대학교 대학  
원 역사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金容燮,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88.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  
배석만, 「일제 말 조선인자본가의 경영활동 분석 : 백낙승과 이종희의 군수회사  
경영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5호, 경제사학회, 2008  
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 100년사 1899-1999』, 1989

- 오미일, 「근대 한국인 대지주층의 자본축적 경로와 그 양상 : 윤치소 일가의 기업투자와 농업경영」, 『한국사학보』 제47호, 고려사학회, 2012
- \_\_\_\_\_, 「일제시기 호남재벌 현준호의 학과농장과 자본축적 시스템」, 『한국민족문화』 제35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_\_\_\_\_,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 민영회에서 안회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2014
- 익산시사편찬위원회, 『익산시사』, 2001
- 허우금, 『일제강점기의 철도수송』, 서울대출판부, 2010
- 전상숙, 『조선총독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2012
-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 55, 2012
- 정승진 「일제시대 식민 '신도시'의 출현과 주변 농촌 -전북 裡里와 大場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쌀·삶·문명연구창간호』,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 2008
- 진 실, 「일제강점 초기 일본인의 이리 진출과 도시형성」,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중점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6
- 전북농지개량조합, 『전북농조80년사』, 1988
- 정안기, 「식민지기 조선인 자본의 근대성 연구 : 경성방직(주)와 조선방직(주)과의 비교 시점에서」, 『지역과 역사』 제25호, 부경역사연구소, 2009
- 지수걸, 「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역사문제연구』3, 역사비평사, 1998
- 淺田喬二, 『(增補)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龍溪書舍, 1989
- 최원규, 일제하 한국인 지주의 농장경영과 자본전환- 전북 옥구군 서수면 사례, 홍성찬외,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수리조합, 지주제, 지역정치』, 혜안, 2006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III-2. 2007
- 허수열, 『개발없는 개발』, 은행나무, 2005
- 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경기도 안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2, 부산경남사학회, 2009
- 홍성찬, 최원규, 이준식, 우대형, 이경란,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 정치』, 혜안, 2006
-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Colonial Cities Development and Korean Capitalist Formation under Japanese Rule

- Focusing on the Park Ki-sun and Park Yeong-cheol family in Jeonbuk Province

Kim, Kyung-na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lonial characteristics of Korea's modern capitalism and the type of comprehensive growth of Korean capitalists, focusing on the Park Ki-sun and Park Yeong-cheol, as Korean leading capitalists. In particular, the central political powe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lonial cities, and the formation of Korean bourgeoisie were reviewed centering on the correlation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directly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Governor-Generals of Chosen from Choshu clique were in urgent need of establishing a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export and transportation of rice from the Mangyeonggang river plains, to appease Japanese domestic opposition forces. The main measures included the development of a new city of Iri and the areas along railroad stations on Jeonbuk-Kyeongpyeon Line(latter Jeolla Line). Park Ki-sun owned a big tract of land in Iri-Jeonju area and headed the preparatory association for Jeonbuk-Kyeongpyeon Line. Park Yeong-cheol, the magistrate of Iksan-gun, and Lee Seong-gyu, the head of Jeonju-myeon, took the lead in developing the sphere of influence of stations. This

suggests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was closely related to the accumulation of land capital by Park Ki-sun, a Korean capitalist. Based on this, Park Ki-sun became an influential person in that region.

Second, the Park Ki-sun and Park Yeong-cheol family showed a type of power-related and regional capital accumulation connected to Governor-Generals in that process. In particular, Park Ki-sun wa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Samnam Bank, which lay under the hereditary family management system where his family including Park Yeong-cheol, as his eldest son, seized the managerial control as large shareholders.

Third, Park Yeong-cheol entered the central financial world thanks to his experience of serving as a provincial governor and the financial capital and land capital accumulated by his father, Park Ki-sun. Based on this, Park Yeong-cheol rose rapidly to top class while he worked as the president of Chosen Commercial Bank through collusion with the regime, and played a role in organizing various types of sociopolitical groups and supporting Japan's general mobilization.

In short, Park Ki-sun and Park Yeong-cheol grew rapidly to be Korean leading capitalists in the process of Japan's colonial urban development. However, they failed to grow into business magnates because of second-class colonial citizens' ethnic limitation, financial sector merger and abolition policy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and managerial limitations of capitalism.

**Key words:** Korean capitalist, Samnam Bank, Chosen Commercial Bank, Park Ki-sun, Park Yeong-cheol, Colonial cities, Ili, Jeonju, Governor-General of Chosen